

소리로 떠나는 여름 휴가, 제주올레 오디오 북

코스별 소개, 지명에 담긴 역사적 이야기, 주변 정보 등을 음악과 함께 제공

다음세대재단(www.daumfoundation.org)과 사단법인 제주올레(www.jeuolle.org)가 소리아카이브(http://soriarchive.net)를 통해 제주올레 오디오북을 선보인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성산일출봉을 접할 수 있는 1코스부터 비양도를 바라볼 수 있는 14코스까지를 소리로 담은 제주올레 오디오북은 p각 코스에 대한 소개, p주변 정보, p제주올레 길을 걸을 때의 에티켓 등을 제공함으로써 올레꾼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p지명의 유래, p역사적 의미, p제주올레 길을 만들 때의 에피소드, p

해당 코스를 걸은 올레꾼의 인터뷰 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여정에 따라 소개함으로써 제주올레 길을 가지 않더라도 MP3 파일을 통해 올레길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도록했다.

또한 제주올레 오디오 북은 코스별 특징에 맞추어 음악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가수 양희은, 이두현 등이 본인의 음악을 제공해줬다.

제주올레 오디오 북은 다음세대재단의 소리아카이브(http://soriarchive.net)와 제주올레 홈페이지(www.jeuolle.org)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소리아카이브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로도 들을 수 있다. 다음세대재단과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추가로 개통되는 코스에 대한 오디오북도 추후 제작할 예정이며,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외국어 버전의 오디오북 제작도 계획중이다.

다음세대재단 문효은 대표는 “제주올레의 아름다운 경치를 소리로 공유하고 보존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은 “좋은 음악과 알찬 정보가 담긴 제주올레 오디오 북이 제주올레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올레는 제주점자로서

관과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가이드북을 제작한 바있다. 점자로 된 가이드북은 전국의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과 제주올레 6코스에 있는 제주올레 안내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주올레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제주올레 길을 즐길 수 있도록, 서귀포시 및 제주시와 함께 휠체어로 갈 수 있는 코스를 개발 중이며, 코스 정비와 장애인용 표식 설치, 안내자료 제작을 마치는 대로 개방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작년에 당초 목표를 초과한 외래관광객 880만명 유치에 이어, 관광선진국 수준인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열기위해 “1,000만명의 관광한국 우리의 희망 에너지로”라는 슬로건으로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외래관광객 추가 유치가 기대되고 있다.한-대만 우호 콘서트(K-POP), 중국 유학생 학부모 한국문화체험 행사 등에 (주)한국인삼공사가 후원을 해 왔으며, 이번 MOU 체결이후 오는 8월 중화권 보환인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2011 IDA(국제유망장) 연회”에 중국관광객 대상 공동 마케팅을 첫번째 행사로 계획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주)한국인삼공사

관광분야 업무협력 MOU 체결



왼쪽부터 한국관광공사 이 참 사장, 한국인삼공사 김용철 사장.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는 국내·외 공동 관광마케팅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하여 (주)한국인삼공사(사장 김용철)와 지난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김용철 한국인삼공사 사장이 참석한 협약식에서 양측은 해외 공동 홍보 및 프로모션 추진,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신규관광상품 개발 국내·외 MICE 대상 홍보 마케팅 추진, 국내·외 여행사 및 언론인 초청 캠프 어 협력 기타 공동 마케팅 사업을 위한 업무 등 관광분야의 포괄적인 협력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태국의 원빈, ‘마리오’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 위촉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4일,태국의 정상급 연예인인 마리오(영문명 Mario Maurer · 사진)씨를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1988년 독일인 아버지와 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마리오 는 가수이자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한 연기자로서, 빼어난 외모로 태국 여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

기를 누리고 있는 만능엔터테이너이다.

공사 방콕지사에서 개최한 '마리오와 함께 한국 여행을' (Feel Korea with Mario) 이벤트 당첨자 4명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마리오 는 4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의 관광명소를 방문할 예정이며, 방문지별 관광매력을 자신의 페이스북 펜페이지

를 통해 팬클럽 회원 30만명에게 홍보하게 된다.

한편, 태국 유력 지상파 TV 채널인 Ch 9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수리위파쇼(Surivipa Show) 제작팀도 마리오의 한국 체류 전 일정을 촬영, 특집프로그램을 통해 8월중 현지 방송할 예정이어서 태국내 온-오프라인을 통한 한국관광홍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공사는 TV를 통해 방송된 일정을 중심으로 태국인 단체여행객과 개별여행객을 위한 투어상품을 새롭게 개발할 계획으로 있어, 증가일로에 있는 태국인들의 한국 여행



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작년 한해 한국을 찾은태국인 관광객은 36.5% 증가한 26만명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있다.

보성군, 뽕배 타고 갯벌을 날다!

천상 갯벌 축제 & 레저 뽕배 대회



보성군(군수 정중해)이 올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바다콘서트 개최 등 축제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바다와 갯벌을 이용한 시원한 여름축제를 개최한다.

보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제1회 도지사기레저뽕배대회와 연계한 ‘별교천상갯벌 축제’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8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별교읍 장양리 어촌체험관 일원에서 오감 이 행복한 ‘별교 천상갯벌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열려 큰 이슈를 불러 일으켰던 ‘남도레저뽕배대회’를 ‘제1회 도지사기 레저 뽕배대회’와 갯벌단체뽕배를 새로운 갯벌레포츠로 특화·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천상갯벌’로 축제 테마를 정하고 공식행사와 다양한 갯벌레포츠 경기, 공연·전시·체험행사 등 화려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누구나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 중이다.

주요 행사로는 첫날인 6일에는 국제다문화가정 레저뽕배 경기와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과 걸 그룹 등이 대거 출연하는 천상갯벌콘서트, 불꽃쇼가 드넓은 갯벌을 배경으로 여름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예정이다.

7일에는 크림처럼 고운 별교갯벌을 뽕배를 이용해 달리는 제1회 도지사기 레저 뽕배대회와 갯벌단체뽕배, 갯벌단체뽕배, 갯벌단체뽕배 등 다양한 갯벌레포츠를 즐기

진하게 펼쳐진다.

축제기간 동안에는 에어바운스 체험, 녹차머드뷰티체험, 갯벌머드작품만들기, 뽕배타기 체험, 천연염색체험, 편백나무자르기, 연날리기, 웰빙체험관 등 다양한 체험행사로 마련되며, 갯벌생태사진과 뽕배전시회도 열린다. 이밖에도 어린이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갯벌 속 보물찾기와 갯벌영화상영, 국악한마당, 향토음식터존, 지역특산품 코너 등 각종 부대행사로 추진된다. 특히 제1회 도지사기 레저 뽕배대회 경기 종목으로는 레저뽕배 일반부, 레저뽕배 전문가부, 전통뽕배 대 레저뽕배 레이스 Special Match 등 3종목으로 나누어 펼쳐지며, 레저뽕배 일반부는 초등부와 중고등부, 대학·일반부 남·여로 각각 나누어 진행된다.

또한 25kg의 부력이 있어 얇은 물도 통과할 수 있으며, 디자인과 색상도 레저스포츠용 장비로 손색이 없으며, 지난해 대회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앞으로 특화된 레포츠 브랜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회 참가자 접수는 보성군청 해양산림과(061-850-5460 ~ 5463) 사전예약 및 당일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참가대상은 초·중·고 학생 이상으로 참가비는 무료이다.

김포공항에서 베이징으로 바로 출발합니다!

한국공항공사, 노선 개설 기념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행사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시철)는 2011년 KAC 사회공헌 특화 프로그램인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김포-베이징 노선개설에 맞춰 중국출신 다문화가족 15가정을 선발, 고향방문 환송식을 김포국제공항에서 개최했다.

모국방문사업에 참여한 다문화 가정은 모두 15가정 48명으로 지난 12일 김포국제공항 귀빈실에서 열린 환송행사에 참석한 뒤 왕복항공권과 체재비 50만원씩을 받고, 21일까지 9박10일간의 일정으로 고향방문 여정에 올랐다.

공사는 2010년 대한적십자사와 다문화·모국방문사업시행 양해각서(MOU)를 체결 후 다문화가정의



고향방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모범적인 다문화 가정을 선발, 모국방문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환송식에서 성시철 한국공항공

사사장은 “지난 1일 김포와 베이징 노선이 개설되어 많은 분들의 중국 여행이 편리해진 만큼 다문화 가정 또한 많은 교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